

shutdown system 이러려면 왜 만들었나.

**말로는, 정시 출퇴근해라, 적법하게 입력해라.
현실은, 입력 못하게 눈치주고 가라고 재촉하고**

shutdown 문제1. 근태 관리가 너무나도 엄격해!

퇴근 시간 다가오면 수선생님 지켜보고, 다른 사람 ID 빌리고

퇴근시간이 다가온다. 환자 기록을 반도 못했다. 연장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수선생님이 물어보신다. ‘아직 일 다 못했니?’ ‘퇴근 시간 다 됐어 얼른들 가.’ 이렇게 쪼일 바엔 돈 안 받을 테니까 편안하게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① 근무시간 외에는 로그인 불가능. 출근 전-퇴근 후 필요한 업무 못해 다른 사람 ID 도용.

환자과약, 물품인계 등 미리 출근해서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로그인이 되지 않아 환자상태를 체크할 수 없다. 물품준비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찍 나오지 말고 정시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다 하라고 한다. 대책은 없다. 결국 근무자 ID를 빌려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응급 터지고, 환자 요청 때문에 인계시간에 못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연장근무를 못하게 하니 다음번 근무자 ID를 빌려 나머지 차팅을 한다. 그리고 내 출근 시간에 다시 내 ID로 기록을 수정한다. ‘의료법 위반’ 이다. 누가 책임 질 것인가.

② 임신한 직원들은 연장근무 입력 아예 안 돼.

한편, 임신한 직원들은 연장근무 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보통

은 연장 버튼을 눌러 사유서를 작성하고 수간호사의 승인을 거치지만 임신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연장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손 털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그 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가야하는 꼴이다. 누가 남의 일을 하고 싶겠는가. 서로 민폐가 되니 임신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③ 일이 안 끝나도 무조건 털고 가라는 간호부

내 일을 남이 해주면 좋다. 그런데 그 일을 받은 남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맡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일인데도 가라고 하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그리고 다음 근무자에게 그 일을 맡기면 미리 나와 체크하던 일도 이제는 못하는데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 연장근무는 없을지 몰라도 조기출근은 기존보다 더 빨라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연장근무는 인정되니 못하게 하고, 조기출근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겠다는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shutdown 문제2. 연장근무 입력 포기하게 만드는 간호부

연장근무의 기준이 뭡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입력 한 번 하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연장근무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입력하고 수선생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수선생님 曰 ‘어느 호실의 어느 환자 때문인지, 무슨 업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제대로 다시 써야 승인이 되지'

① 왜 수간호사의 승인이 필요한가?

의료원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하거나 미리 다음 일을 하려고 연장근무를 하니 승인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의 현실과 맞는 주장인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결국 현장에서는 '연장 근무 입력을 하지 말라고 만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한편, 간호부에서도 연장근무를 인정하고 데이터를 올리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압박을 가하는 등의 연장근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노동자의 법정수당을 채불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충분히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왜 자세히 적어야 하는가?

연장근무를 왜 했는지 누구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지 일일이 기록해야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수공이 가야 연장근무로 인정 받는다. 내가 놀다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진 CPR을 처리하고 환자의 콜을 받고 하느라 업무가 안 끝난 것인데도 말이다. 일부러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병원에 남아있고 싶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③ 연장근무 입력해도 인정은 일부분?

한편,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도 100%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연장근무를 하고 일이 빨리 처리되면 30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상황일 경우 30분 단위로 입력해야 하니까 그 미만은 입력 하지 말라는 언질이 날아온다.

간호부는 이러한 현장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선 대책 없고, 연장근무에 대한 입장이 공지와 현실이달라.

안암 간호부에서는 전체 간호부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이 담긴 글을 전송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처리, 임신순번제에 대한 우려지점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고, 고충처리함으로 올려달라는 글만 적혀져 있다.

의료원은 아직도 '일단 운영해보고 고치겠다.', '간호부에서 문제점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1.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준수는 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교대근무부서에서 다음 duty 근무자가 늦게 출근하면 전 duty 근무자가 늦게 퇴근하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3교대 근무부서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OCS 로그인 연장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 근무 시 본인이 직접 특근신청하고 수간호사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임신순번제

결혼과 임신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사건이며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병원에서 임신순번제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혹여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언행을 삼가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이로 인한 고충이 있을 시 간호부 고충처리함으로 올려주십시오.

간호부에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간호현장에서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을 다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호부가 앞장서야 소속감도 높아지고 직원들의 삶의 질과 노동환경이 개선된다.

병원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직종이 간호직이다. 직원들의 대다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간호부가 외면한다면 결국 병원이미지는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내가 희생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갔다. 기다리고 나만 참으면 조직이 발전한다는 얘기에 동의할 직원들도 없다. 시대적 문화를 통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당장 죽어나가는 간호사들을 잡고 경력직 간호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수준의 병원이 되지 않으면 간호의료의 질은 계속 저하 될 수밖에 없다.

하자! 하자! 다같이! 간호부 고충처리 신청!

1. 간호부 고충처리함을 사용하자!

현재의 셋-다운 시스템의 문제점이 담긴 글을 담아 간호부 고충처리함으로 올려주십시오. 간호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외에도 현실에서 나오는 많은 고충들을 올려주십시오. 많은 고충이 모여야 해결됩니다!

① 현장 설문조사 요청하는 글 ② 연장근무 입력 방법의 어려움 ③ 조기출근 시 연장근무 인정 ④ 출근 전 업무 해소대책 등